

EBS 일반 표

선별 문항

(양적 연구 결과 분석 → 빈곤 → 복지 → 인구 → 기타)

이름 :

1.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연구 주제: 교우 관계 만족도 수준이 보통 이하인 학생들에게 놀이 프로그램 'X'가 미치는 영향
- 연구 가설
 <가설 1> 놀이 프로그램 'X'를 수료한 학생은 교우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가설 2> 놀이 프로그램 'X'의 교우 관계 개선 효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더 클 것이다.
- 연구 설계
 - 교우 관계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중고생 100명(남학생 60명, 여학생 40명)을 섭외하고, 그들 100명 모두에게 놀이 프로그램 'X'를 수료하게 함
 - 놀이 프로그램 'X'의 실행 이전과 이후에 이들 100명 모두의 교우 관계 지수를 측정하고, 그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학생이 전체의 70% 이상 되는지 조사함
- 자료 분석 결과

사전 검사 시 교우 관계 만족 수준	사후 검사에서 교우 관계 지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비율	
	남학생	여학생
보통	70%	90%
낮음	80%	100%

보기

- ㄱ. <가설 1>과 <가설 2> 모두 채택되었을 것이다.
- ㄴ. <가설 2>에서 성별은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
- ㄷ. 종속 변인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이 있다.
- ㄹ. 놀이 프로그램 'X'로 교우 관계 개선 효과를 본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자료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남녀 공학인 ○○고등학교에서는 '두발 규정'을 개정하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며, ㉡'두발 규정' 개정의 긴급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일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두발 규정', '복장 규정', '기타 규정' 중 가장 긴급히 개정해야 하는 규정을 하나만 선택하라고 물어보았으며, ㉢아래 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두발 규정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	남학생 81	75
	여학생	75	70	55

보기

- 갑: ㉠은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독립 변인이네.
- 을: ㉡에 따르면 ㉢의 가설이 채택되었겠군.
- 병: ㉡에 따르면 두발 규정을 선택한 학생은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의 수보다 많군.
- 정: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 없겠네.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정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3.

4 다음의 연구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단계: 갑은 ○○고 학생들의 자존감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2단계: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3단계: ○○고 전체 재학생 1,500명 중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존감 지수(0~100)를 측정하고, 가장 최근에 치른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학업 성취도 수준을 조사하였다.
 4단계: 200명의 자료를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었다. (단위: 명)

자존감 지수 \ 학업 성취도	80 이상	50 이상 80 미만	20 이상 50 미만	20 미만	합계
상	30	10	0	0	40
중	20	60	30	0	110
하	0	0	10	40	50
합계	50	70	40	40	200

* 자존감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자존감이 높은 경우이다.

5단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교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기 」

- ㄱ. 갑은 가설을 채택하였다.
- ㄴ.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 ㄷ. 갑은 학업 성취도를 독립 변인, 자존감의 정도를 종속 변인으로 보았다.
- ㄹ. 자존감 지수가 50 이상이면서 학업 성취도가 중 이상인 경우는 전체 표본의 과반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

8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연구 주제: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용 시간 조절 능력에 성적과 학업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 연구 가설
 가설 1. ㉠ 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활용 시간 조절 능력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_____ (가)
 • 연구 설계: 조사 항목 - 학생 성적, 스마트폰 활용 시간 조절 능력 평균 지수, ㉡ 학업 스트레스 지수
 • ㉢ 자료 수집: ㉣ A 중학교, B 고등학교 학생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 자료 분석 및 결과

- 각 항목은 모두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많거나 높음
- 성적과 학업 스트레스 지수에 따라 각각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각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평균 시험 성적	스마트폰 활용 시간 조절 능력 평균 지수	학업 스트레스 지수	스마트폰 활용 시간 조절 능력 평균 지수
0~50점 미만	3.38	2.9	3.9
50점 이상~80점 미만	3.51	3.5	3.6
80점 이상	4.00	3.9	3.2

- ① ㉠과 달리 분석 결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② ㉡을 통해 독립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인위적인 처치를 가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 ④ ㉣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한다.
- ⑤ (가)가 '학업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스마트폰 활용 시간 조절 능력이 낮을 것이다.'라면, 가설은 기각된다.

5. **0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과 을국에서는 모두 절대적 빈곤을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상대적 빈곤을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로 정의한다. 갑국과 을국 모두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30%로 산정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측정한다.

구분	갑국	을국
중위 소득 (달러/월)	2,400	3,000

보기

- ㄱ. 갑국의 상대적 빈곤선이 을국의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다.
- ㄴ. 을국의 상대적 빈곤선은 갑국의 상대적 빈곤선의 125%이다.
- ㄷ.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가구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다.
- ㄹ. 갑국과 을국 모두 현재보다 중위 소득이 50%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 가구가 50% 증가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6.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의 증가율을 조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시된 기간 동안의 갑국의 최저 생계비와 중위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시된 기간 동안 갑국의 전체 가구 수와 가구 구성원 수는 변화가 없다. 또한 t-1년에 갑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이다.

구분	(전년 대비, %)		
	t년	t+1년	t+2년
상대적 빈곤 가구 증가율	10	0	-10
절대적 빈곤 가구 증가율	-10	10	10

* 절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보기

- ㄱ. 절대적 빈곤 가구는 t+1년보다 t-1년이 많다.
- ㄴ. t+2년에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이다.
- ㄷ.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ㄹ.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는 t년에 가장 많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은 절대적 빈곤을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로, 상대적 빈곤을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로 선정한다. 갑국은 국가중앙위원회에서 매년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갑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2018~2020년 갑국의 전체 가구 수는 동일하고, 빈곤 관련 지표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갑국의 빈곤 관련 지표>

연도	지표	최저 생계비 (월 소득)	중위 소득 (월 소득)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2018년		1,800달러	4,200달러	3%	15%
2019년		2,000달러	4,800달러	5%	20%
2020년		2,200달러	5,000달러	10%	25%

보기

- ㄱ.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의 격차는 2019년이 가장 크다.
- ㄴ. 2018년 대비 2020년에 두 빈곤 모두에 속하지 않는 가구 수는 10% 이상 감소하였다.
- ㄷ. 2019년 대비 2020년의 최저 생계비 증가율과 중위 소득 증가율은 동일하다.
- ㄹ.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최저 생계비 인상액 대비 절대적 빈곤율의 증가 정도가 상대적 빈곤선 증가액 대비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 정도보다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3** 다음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갑국의 빈곤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은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으로,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으로 판정한다. 갑국 정부는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에 다음과 같은 월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갑국의 월 최저 생계비는 1,200달러이다. 또한 현재 갑국에는 가구원 수가 동일한 A~I의 가구만 존재하며, 이들의 월 소득은 다음과 같다. 단,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은 중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절대적 빈곤 가구이면서 상대적 빈곤 가구인 경우에는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만을 받을 수 있다.

<갑국의 가구별 월 소득>

구분	A	B	C	D	E	F	G	H	I
월 소득(달러)	800	1,200	4,800	7,200	3,000	3,600	1,000	2,400	8,000

<갑국의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구분	생활 지원금	의료 지원금	교육 훈련 지원금
절대적 빈곤 가구(달러)	500	300	400
상대적 빈곤 가구(달러)	해당 없음	200	300

* 가구 월 총소득 = 월 소득 + 정부 지원금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①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다.
- ② 절대적 빈곤에 속하지 않고 상대적 빈곤에만 속하는 가구가 있다.
- ③ 가구별 정부 지원금은 절대적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의 2배를 초과한다.
- ④ 정부 지원금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이전 월 소득보다 많은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 ⑤ 가구 간 월 총소득의 최대 격차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이후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이전의 80%이다.

9. 08

▶ 20060-012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중위 소득의 50%와 최저 생계비가 다르면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도 다르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표는 t년과 t+1년의 중위 소득 및 최저 생계비를 나타낸다.

구분	년	t+1년
중위 소득(달러/월)	2,000	2,400
최저 생계비(달러/월)	1,100	㉠

• 같이 속한 가구는 t년과 t+1년에 각각 '상대적 빈곤이 아닌 절대적 빈곤 가구'와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고, t+1년의 최저 생계비는 t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단, 상대적 빈곤 가구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절대적 빈곤 가구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이다.

- ① ㉠은 1,200달러보다 크다.
- ② t년 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1,100달러 이상이다.
- ③ t년 같이 속한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 ④ t+1년에는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 ⑤ t년 대비 t+1년의 중위 소득의 증가율이 최저 생계비의 증가율보다 작다.

10. 09

▶ 20060-012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갑국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총 10분위로 나누는 후, 이 기간 동안 1년 뒤 각 분위에 속한 가구가 다른 분위로 이동했을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단위: %)

분위	1	2	3	4	5	6	7	8	9	10
하향 이동	-	22.7	26.7	30.1	33.9	37.2	38.3	37.8	36.8	31.3
불변	57.9	40.5	34.7	30.7	29.9	29.2	31.9	35.2	45.2	68.7
상향 이동	42.1	36.8	38.6	39.2	36.2	33.6	29.8	27.0	18.0	-

보기

- ㄱ. 갑국이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 ㄴ. 가구당 소득은 1분위가 가장 많고 10분위가 가장 적다.
- ㄷ. 2~5분위 가구는 상향 이동할 확률이 하향 이동할 확률보다 높았다.
- ㄹ. 1~3분위 가구가 4~7분위 가구에 비해 같은 분위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1.

10

▶ 20060-013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다. 단,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고, 도시 가구 : 농촌 가구는 2 : 1이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고, 최저 생계비와 중위 소득은 도시와 농촌이 각각 같다.

구분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농촌 가구	7.0	3.0
전체 가구	5.0	5.0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에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① 농촌 가구의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 ② 도시 가구의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 ③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도시가 농촌보다 적다.
- ④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도시가 농촌의 4배이다.
- ⑤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미만이다.

12.

18 표는 갑국의 가구 구성별 빈곤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며, 갑국 장애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3점]

(단위: %)

구분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2016년	30.2	44.6	37.3	51.3
2018년	32.3	46.8	37.3	47.2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① 2016년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50%보다 크다.
- ② 2016년 중위 소득 미만의 장애인 가구의 비율은 50%이다.
- ③ 2018년 장애인 가구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 ④ 2016년 대비 2018년의 노인 가구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변함이 없다.
- ⑤ 2016년과 2018년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노인 가구가 장애인 가구보다 많다.

13. **14** 표는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은? (단,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3점]

빈곤율	연도	2010년	2015년	2020년
	절대적 빈곤율(%)		4.5	5.0
상대적 빈곤율(%)		9.0	5.0	3.0

- 절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상대적 빈곤율: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 ① 절대적 빈곤선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 ② 상대적 빈곤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③ 2010년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의 2배이다.
- ④ 절대적 빈곤 상태이면서 동시에 상대적 빈곤 상태인 가구는 2015년에 가장 많다.
- ⑤ 2020년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14.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의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두 국가 모두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최저 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 갑국과 을국 모두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갑국	1/2	2/5	4/5
을국	1	3/5	1/2

- 상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 절대적 빈곤 가구: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보기

- ㄱ. 2010년에 갑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 ㄴ. 2010년 대비 2015년에 갑국에서 최저 생계비의 증가율이 중위 소득 50%의 증가율보다 높다.
- ㄷ. 2015년 대비 2020년에 을국의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은 모두 높아졌다.
- ㄹ. 을국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2010년보다 2020년이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4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용직인 갑은 아내와 둘이서 한 가구를 이루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2019년 현재 아래 그림과 같이 가구 소득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복지 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 급여 등을 받고 있다.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밀렬하였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보기

- ㄱ. 갑은 주거 급여를 받고 있을 것이다.
- ㄴ. 갑은 생계 급여를 받고 있을 것이다.
- ㄷ. 갑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이다.
- ㄹ. 중위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갑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은 80만 원 이하일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국민 연금 제도,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 중 하나이다.)

자료는 ○○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A~C 각각의 수혜자 비율 변화를 나타내며, 2015년 대비 2018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 증가하였다. (단위: %)

구분	2015년	2018년
A	19.6	39.2
B	7.2	7.0
C	2.3	2.3

단,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없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으로만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 노인 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에 대한 주기적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

- ① A는 B와 달리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 ② B는 C와 달리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 ③ 2015년 대비 2018년에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비율은 줄었다.
- ④ 2015년 대비 2018년에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변함이 없다.
- ⑤ 2015년 대비 2018년에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이 지급되는 제도의 수혜자 증가율은 20%가 되지 않는다.

17.

8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모두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자료 1〉

갑(62세)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서 (가)에 따라 생계 급여를 받고 있고, 을(57세)은 기초 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워 (나)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은행원인 아들과 함께 사는 병(70세)은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다)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 있다.

〈자료 2〉 A 지역의 (가)~(다)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가)	(나)	(다)
남자 수급자/전체 남자 인구	5.2	8.0	5.0
여자 수급자/전체 여자 인구	7.2	7.5	7.5
수급자/전체 인구	6.0	7.8	6.0

- ① A 지역의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많다.
- ② (가)의 수급자 중에서 여자 인구는 50%를 넘는다.
- ③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다.
- ④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에서 남자 수급자 수와 여자 수급자 수는 같다.
- 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와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같다.

18.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국민 연금 중 하나이다.)

이 지역에서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유형에 속한 제도의 수혜자 비율이 높군요.

재원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에 속한 제도의 수혜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1.5배이군요.



〈우리나라 ○○지역 A, B의 수혜자 비율〉

구분	남성	여성	전체
A 수혜자 비율(%)	30	20	24
B 수혜자 비율(%)	95	80	86



- ① 이 지역은 남성 전체 인구가 여성 전체 인구보다 많다.
- ② A의 수혜자 수는 남성과 여성이 같다.
- ③ A의 수혜자 수와 B의 수혜자 수 간의 격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
- ④ A가 속한 유형은 B가 속한 유형과 달리 원칙적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가 가능하다.
- ⑤ B가 속한 유형은 A가 속한 유형과 달리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 전액을 수혜자가 부담한다.

19. 07

▶ 20060-0137

표는 갑국 국민들의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국민 건강 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응답자 수는 같다.)

(단위: %)

구분		㉠ 국민 건강 보험			㉡ 국민연금		
		부담됨	보통임	부담 안 됨	부담됨	보통임	부담 안 됨
성별	남성	62.3	37.0	0.7	64.6	22.4	13.0
	여성	73.7	26.0	0.3	77.6	19.4	3.0
직업별	전문직	65.0	30.0	5.0	63.0	34.0	3.0
	사무직	67.0	22.0	11.0	66.0	30.0	4.0
	서비스직	72.0	23.0	5.0	68.0	27.0	5.0
	기능직	66.0	28.0	6.0	72.0	26.0	2.0

보기

- ㄱ. ㉠에서 '부담됨'에 응답한 사람은 남성이 여성보다 적다.
- ㄴ. ㉠에서 남성 사무직 가운데 '부담됨'으로 응답한 비율은 67%이다.
- ㄷ. ㉡에 대해 남성의 과반수는 '부담됨'에 응답하였다.
- ㄹ. 기능직의 경우 '부담 안 됨'에 응답한 사람은 ㉠이 ㉡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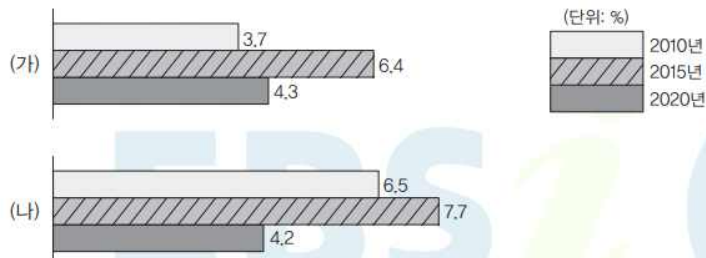
20. 10

▶ 20060-014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약제, 수술, 치료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는 (가)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며,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제도는 (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단, (가), (나)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 중 하나이다.)

<각 연도별 A 지역의 전체 인구 중 (가), (나) 수혜자 비율>



*A 지역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보기

- ㄱ. (가)는 사회 서비스, (나)는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 ㄴ.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제도의 경우, A 지역의 2015년 수혜자 비율은 7.7%이다.
- ㄷ.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제도의 경우, 비교 연도 중 2010년의 수혜자 수가 가장 적다.
- ㄹ.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의 경우, 2015년 수혜자 비율이 2020년 수혜자 비율보다 낮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0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과 을국의 15~64세 인구는 같다.

구분	갑국	을국
유소년 부양비	25	25
노년 부양비	25	50

* 유소년 부양비 = $\frac{0\sim 14\text{세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보기 」

ㄱ. 65세 이상 인구는 을국이 갑국의 2배이다.
 ㄴ. 갑국과 을국 모두 15~64세 인구는 총인구의 50% 미만이다.
 ㄷ. 총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
 ㄹ. 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比)는 을국이 갑국의 2배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2.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는 갑국의 15~64세 인구에 대한 0~14세 인구나 65세 이상 인구의 비(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15~64세 인구는 t년이 t+50년의 2배이다.

구분	t년	t+50년
0~14세 인구	0.2	0.2
65세 이상 인구	0.2	0.8

- ① 총인구는 t+50년이 t년보다 적다.
 ② 65세 이상 인구는 t+50년이 t년의 2배이다.
 ③ t+5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40%이다.
 ④ t년에 15~64세 인구는 0~14세 인구나 65세 이상 인구의 합보다 많다.
 ⑤ t년 대비 t+50년의 65세 이상 인구 증가 인원이 15~64세 인구 감소 인원보다 많다.

23. **3** 표는 갑국의 인구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15~6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구분	t년	t+10년	t+20년
노령화 지수	25	50	100
유소년 부양비	16	20	15

* 노령화 지수 = $\frac{65\text{세 이상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유소년 부양비 = $\frac{0\sim 14\text{세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① t+10년의 총인구는 65세 이상 인구의 10배이다.
- ② 0~14세 인구는 t+10년이 가장 많고, t+20년이 가장 적다.
- ③ 총인구에서 15~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10년이 t년보다 높다.
- ④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10년이 t년의 2배이다.
- ⑤ 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比)는 t+20년이 t+10년의 1.5배이다.

24. **05** ▶ 20060-0155
 표는 갑국의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노년 부양비	20	50	60
노령화 지수	25	100	150

- * 노년 부양비: 생산 가능 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
 **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
 ... 갑국의 전체 인구는 일정함

- ① 2000년, 2010년, 2020년의 15~64세 인구는 동일하다.
- ② 2010년부터 15~6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 ③ 갑국은 2010년부터 고령 사회에, 2020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 ④ 2010년 이후 10년간의 0~14세 인구 감소율은 이전 10년간보다 증가하였다.
- ⑤ 2010년 이후 10년간의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이전 10년간보다 증가하였다.

25. **19** 표는 갑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0~14세 인구 비율(%)	12	9	8
65세 이상 인구 비율(%)	16	25	34
노년 부양비(명)	㉠	㉡	㉢

*노년 부양비: 생산 가능 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
 **갑국의 전체 인구는 일정함

- ① 0~14세 인구의 감소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② 15~64세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③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일정하다.
- ④ 갑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다.
- ⑤ ㉡은 ㉠의 2배를, ㉢은 ㉠의 3배를 넘는다.

26. **3**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전체 응답자 중 남자 수와 여자 수는 같다.)

<자신의 인생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집단>

(단위: %)

구분	가족	또래 집단	중·고등학교	직장	계
남자	41.4	24.6	23.7	10.3	100
여자	43.2	17.8	28.1	10.9	100
전체	42.3	21.2	25.9	10.6	100

보기

- ㄱ. 2차적 사회화 기관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다.
- 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다.
- ㄷ.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자 2차적 사회화 기관인 집단을 선택한 응답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 ㄹ.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자 2차적 사회화 기관인 집단을 선택한 응답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7.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자 A는 성 불평등 지수와 지역 불평등 지수를 개발하여 각 국가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음은 A가 두 지수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단, 성별은 남성과 여성, 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만 구분하며, 갑국과 을국은 전체 국민 임금이 상호 동일하고, 국가 전체 총생산액도 상호 동일하다.

지수 \ 국가	갑국	을국
성 불평등 지수	40	50
지역 불평등 지수	20	80

* 성 불평등 지수 = ((전체 남성 임금 - 전체 여성 임금) / 전체 국민 임금)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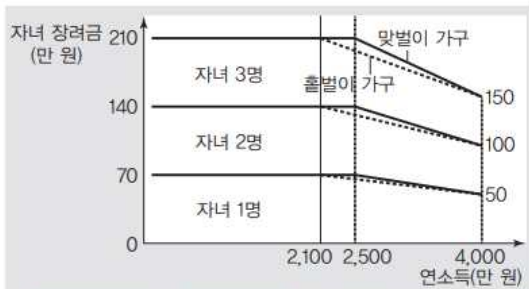
** 지역 불평등 지수 = ((도시 지역 총생산액 - 농촌 지역 총생산액) / 국가 전체 총생산액) × 100

- ① 갑국의 전체 남성 임금은 전체 여성 임금의 2배이다.
- ② 을국의 농촌 지역 총생산액은 도시 지역 총생산액에 비해 80% 수준이다.
- ③ 농촌 지역 총생산액은 갑국이 을국의 4배이다.
- ④ 갑국은 을국에 비해 성 불평등 지수와 지역 불평등 지수 간 차이가 크다.
- ⑤ 을국은 갑국에 비해 전체 남성 임금은 적고, 전체 여성 임금은 많다.

28. **07**

▶ 20060-0127

그림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 장려 세제'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 되어야 지급함

- ①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 ② 자녀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최대 70만 원이다.
- ③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이 달라진다.
- ④ 저소득 가구의 근로 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⑤ 동일한 조건이라면 맞벌이 가구보다 홀벌이 가구의 자녀 장려금이 많다.

29. 03

▶ 20060-0153

그림은 연령별 및 월 가구 소득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디지털 정보화 수준: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령별 또는 월 가구 소득별 수준을 나타냄

- ①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낮다.
- ② 20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0대의 2배를 넘는다.
- ③ 20대 중 기초 수급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109.8%이다.
- ④ 연령보다 월 가구 소득에 따른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더 크다.
- ⑤ 월 가구 소득과 디지털 정보화 수준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30. 16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 노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 안 함	전혀 만족 안 함	
전체	0.9	25.5	35	30.5	8.1	
성 별	남성	1.2	30	35	30.2	3.6
	여성	0.8	24	35	30.6	9.6
학 력 별	초졸 이하	0.6	22.4	37.1	31.6	8.3
	중졸	1.1	26.0	36.3	29.0	7.6
	고졸	1.6	33.1	32.7	25.0	7.6
	전문대졸 이상	2.7	48.3	27.3	14.8	6.9

· 갑국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무응답은 없음

보기

- ㄱ. 여성 노인 인구가 남성 노인 인구보다 많다.
- ㄴ.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 ㄷ. 학력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 ㄹ.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에서 경제 상태에 대해 '전혀 만족 안 함'으로 응답한 노인 인구는 같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1.

빠른 정답

1. ②
2. ⑤
3. ④
4. ②
5. ①
6. ②
7. ①
8. ⑤
9. ④
10. ⑤
11. ③
12. ③
13. ⑤
14. ②
15. ④
16. ⑤
17. ④
18. ②
19. ⑤
20. ③
21. ②
22. ⑤
23. ⑤
24. ①
25. ④
26. ②
27. ③
28. ⑤
29. ⑤
30. ④